

보도시점 2026. 9. 15.(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2026. 9. 14.(월)

정부-기업, 취약계층 어린이 실내환경 개선에 힘 모아

- 추석 명절 앞두고 아동양육시설 찾아 침구·매트리스 살균 작업,
벽지·장판 교체 등 실내환경 개선 및 후원물품 전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우)은 9월 16일 오후 데레사의 집*(서울 은평구 소재)을 찾아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 여자아이들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1980년 7월 개원한 아동양육시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6월 11일 정부와 17개 기업이 체결한 ‘2026년 환경보건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기업들이 제안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봉사활동 당일에는 세스코, 슈가 에코, 엘엑스하우시스, 엘지생활건강 등의 기업이 함께한다.

* 참여기업이 벽지·바닥재·공기청정기 등 친환경자재 및 환경성질환 예방 용품 무상 후원

이날 현장에서는 참여기업의 전문기술 및 자원 등을 활용해 거주 공간에 대한 △침구 및 매트리스 살균 작업, △침실 벽지 및 공용공간 장판 교체, △주방·화장실 청소·소독 등 실내환경 개선이 진행된다. 아울러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환경성질환 예방용품과 환경도서 등 다양한 후원물품도 함께 전달해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홍경진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활동이 정부와 기업, 현장 관계자가 함께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건강을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성장기 아이들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현장방문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홍경진 (044-201-6750)
		담당자	사무관	홍정호 (044-201-676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	책임자	실 장	이경희 (02-2284-1810)
		담당자	선임연구원	이지완 (02-2284-1823)



□ 목적

- 민관이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취약계층 어린이 거주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실내환경 개선 및 현장 관계자 격려

* 실내환경개선 업무협약식('26.6.11) 간담회 의견 중 참여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 확대를 위해 봉사활동 제안

□ 방문 개요

- 일시 : '26.9.16.(수), 14:00~15:40(약 100분 소요)
- 장소 : 데레사의 집(서울 은평구)
 - ※ 여자 아동들의 건강한 자립을 돕는 아동양육시설('80.7월 개원)
- 참석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사회공헌기업 등 20명
- 주요 내용
 - (봉사활동) 침구 및 매트리스 케어, 침실 벽지 및 공용공간 장판 교체, 주방·화장실 청소·소독 등
 - (후원물품 지원) 환경성질환 예방 용품, 환경도서 등